

행복한 금요 편지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박재완¹⁾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어려움에 처해 찢찢 매거나 실의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결코 자신감과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고통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담보다 실패담이 더 진한 감동을 줍니다. "램프는 어둠 때문에, 나침반은 안개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역대 영국 수상 53명 가운데 12명은 생부를 모르거나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가깝게는 클린턴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위장된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오롯이 우리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생후 19개월 만에 시각과 청각을 잃은 헬렌 켈러 여사가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것처럼, 새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 SBS TV가 2010년 호주에서 일어난 기적을 방영했습니다. 몸무게가 900g 밖에 안 된 미숙아가 출생 20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2시간이 지나자 아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신생아가 엄마 품에서 살아난 사례는 8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 박재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임하였으며, 현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이면서 오랜 울림을 남긴 실화로 편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모리스타운의 카렌은 세 살배기 아들 마이클과 함께 뱃속에 든 딸에게 매일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안타깝게도 카렌은 분만 중 심각한 합병증을 겪었고, 신생아는 인근 성 마리아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카렌 부부는 장의사와 공동묘지에 연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인 마이클은 여동생을 보게 해 달라고 보챘습니다. "난 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라고 말이죠.

어린애는 중환자실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카렌은 마이클에게 성인용 수술복을 입히고 중환자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간호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데리고 나가요." 평소 온순한 카렌이 수간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애가 동생에게 노래를 부를 때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티격태격하다가 드디어 마이클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마이클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여동생의 맥박이 돌아오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여동생은 퇴원해도 좋을 만큼 상태가 호전됐고 물론 되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여정에 신(神)의 가호와 가피(加被)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